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 대학원 조 윤 희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최 현 숙

- I. 서 론
- II. 패션사진의 이론적 고찰
- III. 초현실주의(Surrealism)경향의 패션사진
- IV. 결 론

I.

현대인들은 문화적 현상의 미적 대상들을 주관적인 견지에서 가치를 확대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기도 하며, 주관적 표현은 모든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더욱더 새롭고 실험적이며 전위적인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표현상의 특성으로서 초현실주의 기법과 요소들이 등장하여 회화를 비롯하여 건축, 영화, 문예, 장식미술, 패션, 사진 등 방면으로 등장하여 신선하면서도 환상적인 모습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든 현재 세계 패션계는 시즌마다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여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면서 패션의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패션사진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매체로 자리잡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기록 수단으로서 그리고 홍보의 목적에서 패션이미지의 고양을 위해 사진과 의상과의 교류는 불가피하다. 그 결과 패션사진이라는 분야가 확고하게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사진에 관한 연구는 패션 전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사진전공의 논문에서의 연구에서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로 연구되었거나 사진분야 쪽으로 치중한 경향을 보였고 또한 패션과 초현실주의 패션사진과의 연관성을 배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001년 패션 브랜드 광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초현실주의의 경향으로 초현실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제 1차 대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현실주의와 패션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은 초현실주의경향의 사진이 회화와는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패션과 사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영향은 어떠한지를 인식하여, 패션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에서의 초현실주의의 분석과 패션사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논문과 서적을 위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에 실린 패션사진은 보그(Vogue)와 하퍼스바자(Harper's Bazaar)를 위주로 하였고 그 외에도 작가들의 사진집이나 영국, 이태리, 프랑스 등의 여러 패션잡지를 첨가하였다. 실증적 연구로는 현대 패션 매거진이나 트렌드 북,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로 하였다.

II.

1.

모드(mode)사진이라고도 불리우는 패션사진은 주로 모델을 이용하여 의상을 소개하는 사진을 지칭하는 말¹⁾로서 각 시대의 유행 패션이 만들어낸 감성적인 요소들을 시각적 표현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패션사진은 의상이나 제품의 특성 이 외에도 디자이너의 컨셉(Concept), 문화적 환경, 소비자의 잠재적 요구까지도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포트레이트나 누드 사진, 일부 순수사진까지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패션사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패션사진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들은 윌리엄 어윅(William Ewing)의 말로써 종합해 볼 수 있다.

“예술의 개념뿐만 아니라 매력, 미, 희망, 섹스, 사회계급, 부, 민주, 선망, 나르시시즘²⁾, 그리고 욕망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다.”³⁾

이 정의에서의 패션사진은 단지 의상을 소개하는 차원 이상으로 모델로 하여금 어떠한 이미지들 즉, 매력미, 환상, 사랑, 섹스, 희망 등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닌 단지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의 상상적인 공간이 된다. 그러나 사전적인 풀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패션사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시대의 기호에 따라 유행하거나 앞

1) 정승혜, 패션사진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2000, p.6

2) 나르시시즘(narcissism): 나르시스의 신화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에 도취하는 것이다.

3) 이수왕, 90년대 패션사진의 흐름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1998, p.5.

서가는 양식이나, 관습, 또는 인기 있는 것들 중 의상과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사진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⁴⁾

패션사진은 옷이 주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여 마케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패션사진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제작되었느냐 하는 사전 조건보다는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하는 효과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패션사진이 순수예술이기보다는 대중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과는 별도로 패션사진가 자신의 미적 감각 즉, 어떤 유형의 여성이 이상적인가 하는 의견이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과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각적 대응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⁵⁾

패션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전체 스타일을 결정하는 아트 디렉터(Art director), 의상 디자이너(Designer), 모델(Model), 스타일리스트(Stylist), 머리모양과 화장을 담당할 미용사(Hair designer & Makeup), 조명 담당자(Lighting editor), 코디네이터(Coordinator), 사진사(Photographer)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조해서 하나의 패션사진을 만들게 되는데 패션사진이 잡지와 같은 매체에 실려 완성되기까지는 잡지의 편집자(Editor)⁶⁾나 레이아웃터(Layoutter)⁷⁾의 손이 필요하다. 이렇듯 패션사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감성적인 조화로써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2.

1) 매체에 따른 분류

(1) 에디토리얼(Editorial) 패션사진

주로 잡지 화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패션잡지사의 시각과 의도가 반영이 되어 제작되는 사진이다.⁸⁾ 일반적으로 패션잡지사의 편집장, 또는 패션 담당 디렉터와 에디터가 시즌에 유행할 의상의 형태, 패브릭의 소재, 색상 분위기 등을 예견하고 적절한 옷을 선정하여 잡지의 편집방향을 기획하고 컨셉(concept)을 잡아 촬영을 사진가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옷의 정보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중요시한 작업들이 많

4) 고희모, 여성 성의식의 변화가 패션사진의 표현에 미친 영향 -여성해방운동의 성과가 활발했던 60-90년대를 중심으로-, kapa 28호, 2000, <http://www.fotato.com/webzine/book/02/index02.asp>

5) 이경옥, 패션사진의 시각적 표현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 패션 전문지의 광고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1994, p.3.

6) 편집자(Editor): 책이나 신문, 영화, 필름이나 녹음테이프 따위를 펴내거나 만들기 위해 일정한 기획안에 정보를 수집, 정리 구성하는 사람.

7) 레이아웃터(Layoutter): 편집, 디자인 등에서 문자, 회화, 사진 따위의 각 구성요소들을 일정한 지면 안에 다 배치하는 사람.

8) 김석란, 광고사진의 image에 관한 고찰-fashion catalogue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1998, p.29-31.

으며 사진이 잡지에 게재 될시 옷에 대한 설명이 캡션(caption)형태로 드러나 있다.

(2) 카탈로그 타입(Catalog Type) 패션사진

카탈로그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옷이나 패션제품들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진이다.⁹⁾ 의류 회사에서 자사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나 소비자들에게 올해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사용되는데 요즘은 통신판매나 인터넷 홈쇼핑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 처럼 통신판매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카탈로그 타입 패션사진이 다양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시각이 높아지면서 카탈로그 사진이 에디토리얼화되고 있다.¹⁰⁾

(3) 애드버타이징 타입(Advertising Type) 패션사진

광고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진에 해당되며, 광고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나아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하며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주도하는 것이 광고사진이다.¹¹⁾

에디토리얼 패션사진과 카탈로그 패션사진에서 사용되는 방법 이외에도 단순화시킨 이미지나 의상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물이나 대상, 상황 등을 예술사진의 형식이나 보도사진, 다큐멘터리 사진방법을 차용해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다.

2) 형식에 따른 분류

(1) 연속 사진(photo sequence)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것으로 몇 장의 사진으로 연속하는 동적 변화의 흥미로운 표현에 가장 역점을 둔 사진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장면의 시각적 경과를 차례로 추적하고, 어떤 대상을 발견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촬영해 가는 방법이다.

(2) 연작 사진(photo series)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제각기 독립해 있으나 그것이 이어져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는 사진으로 무엇보다도 주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사진은 에디토리얼 작업이나 애드버타이징 작업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광고에서 어떠한 컨셉과 이미지를 그 브랜드에서 내세우는 것을 비슷한 분위기로 사진 여러 장에 담아 나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리즈 작업으로 하여금 보다 대중에게 강

9) 조세현, 조세현 패션사진, 김영사, 2000, p.18.

10) 조세현, op. cit., p.19.

11) 이명천 외, 14명, 글로벌 시대의 광고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p.20.

한 어필을 할 수 있다.

(3) 엮음 사진(photo story & photo essay)

포토 스토리(photo story)는 몇 장의 사진을 연결 시켜서 하나의 이야기 전개가 되어 주제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주제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기승전결에 의해 구성된다. 이 작업에서는 주제가 초점이기 때문에 확고한 테마에 의해서 사진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문제나 사상이 선명하게 나타나 보는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포토 에세이(photo essay)도 스토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몇 장의 사진을 늘어놓아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단독사진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전후가 이어지면 명백한 의미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3.

1) 패션사진의 등장과 전개

패션사진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19세기 중반에 포트레이트 형식의 명함판 사진이 패션사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13년 아돌프 드 메이어(Adolphe de Meyer)의 보그(Vogue)에 실린 사진을 시점으로 패션사진의 본격적인 역사가 전개되었으며, 제 1차 세계대전 말엽, 만 레이(Man Ray)와 세실 비튼(Cecil Beaton), 어윈 블루멘펠드(Ewin Blumenfeld) 등에 의한 초현실주의(Surrealism) 패션사진이 전개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패션사진계는 어빙 펜(Irving Penn)과 리처드 아베돈(Richard Avedon)에 의해서 주도되어 보그(Vogue),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기로 진입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성의 개방으로 인하여 에로티시즘(Eroticism)이 패션사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1990년대 이후 스티븐 마이젤(Steven Meiser) 등의 사진작가들에 의해 창조적 경향의 패션사진들이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다양한 패션사진이 전개되고 있다.

2) 패션 잡지의 역할

패션사진의 역사를 살펴보면 패션 전문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진으로 인해 패션이 보다 대중들에게 크게 보급되고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패션전문지는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잡지는 정기 간행되므로 최신유행 패션의 상황을 연속해서 볼 수 있고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패션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¹²⁾

초창기의 패션잡지는 지적 정보 전달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과 상류층이 주된 독자였다. 초창기 패션잡지는 망판 인쇄술로 인해 사진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하였고 당연히 패션잡지는 삽화 위주였으며 사진은 단순히 보조 역할로만 사

12) 홍주표, 패션사진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경향과 표현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학위, 1998., p.1.

용되었다.¹³⁾ 이후 중산층의 등장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패션 잡지가 대중화됨과 동시에 그 잡지들로 인하여 기성복의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으며 패션사진의 발전과 함께 여러 패션 잡지에서는 각 사(社)마다의 독특함과 새로운 경향들을 선보였다.

오늘날의 패션잡지가 가지는 중요도는 패션계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이며 이것은 과거 단순한 복식도판 제시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대중에게는 다채로운 시각적 정보에 의한 패션마인드의 변화를 제시하며 둘째, 패션 전문인에게는 새로운 방향의 제시 및 홍보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전반적인 패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¹⁴⁾

III. (Surrealism)

예술과 패션에 있어서 초현실적인 요소의 표현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가 태동한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초현실주의 발생배경

초현실주의 운동은 매우 조직적인 미술가와 작가들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으며 그 구성원들이 다다이즘에 관여했고 이러한 다다이즘의 정신이 초현실주의로 이어졌다.

유럽의 제 1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환멸을 안겨주었고 합리적 풍토에 젖어있던 이들에게 전통예술이 갖는 모순에 불신을 느끼게 했다.¹⁵⁾ 1차 세계대전이 정점에 달했던 1915~1916년경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부터 독일, 프랑스 등의 전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는 다다(Dada)¹⁶⁾라고 불리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다다’(dada)란 말은 어린이의 의성어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불어 사전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찾아낸 트리스탄 짜라(Tristan Tzara)¹⁷⁾에 의하면, 이 말은 일체의 무의미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의미로서 의미를 대체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13) 조세현, *op. cit.*, p.24.

14) 윤을예, 국내 라이센스 패션 잡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1997, p.11.

15) 형성희, 은영자,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복식문화연구 제 2권 제 2호, 1994, p.417.

16) 제1차세계대전(1914~1918) 말엽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으로 다다(dada)라고도 하며 조형 예술뿐만 아니라 넓게 문학·음악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다다란 본래 프랑스어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木馬)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다다이즘의 본질에 뿌리를 둔 ‘무의미함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7) 루마니아 출신인 프랑스 시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는 스위스에서 시문학의 새로운 운동인 다다이즘을 제창하였다. 《카바레 볼테르》 《시크》 《남북(南北)》 등의 중요한 잡지를 간행하였고, 1918년에는 《다다 선언 1918 Manifeste Dada 1918》을 내놓았다.

당시의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인해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등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인, 음악가, 화가, 작가 등 많은 젊은 예술인들은 전쟁의 만행을 혐오하고 전통적인 사회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예술적 이념으로 시작되는 저항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¹⁸⁾

1922년경에는 유럽 각국에 흩어져 다다운동에 참가하였던 예술가들이 파리에 모여 대규모의 국제전을 개최하여 피카비아(Francis Picabia), 뒤샹(Marcel Duchamp), 만레이(Man Ray), 장 아르프(Hans Arp),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짜라(Tristan Tzara) 등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다다는 ‘다다가 계속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다다가 존재한 것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브르통(Andre Breton)의 선언과 더불어 1922년 해산되었고, 대부분의 다다이스트들은 초현실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¹⁹⁾

2.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의 문학·예술사조로써 쉬르레알리즘이라고도 한다.²⁰⁾

초현실주의라는 말은 1917년 시인 아폴리네르(Apollinaire)가 “띠레시아의 유방 (Les Manelles de Tiresias)”이라는 희곡(부제: 초현실주의적 드라마)에서 “Surrealism”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명명되어졌다.²¹⁾ 초현실주의가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는 시인 앙드레 브레통(Andre Breton)이 1924년 초현실주의 제 1 선언문(Menifeste de Surrealisme)이 발간한 1924년부터였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리비도설(Libido說)이 도입되어 브레통은 꿈을 무의식의 표출이라 기술하였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의 3단계인 의식, 무의식, 전의식에서 인간의 정신생활 중 무의식이 그에 있어서는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인간의 모든 원초적 충동이나 욕망이 잠재하는 세계라고 하였다.²²⁾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에 상상력을 펼쳐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오토마티즘(Automatism)기법을 통해 이들의 갖가지 시도는 시·회화·사진·영화 속에서 현실적인 연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것, 비합리적인 것, 우연한 것 등을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 이념과 전통은 다다이즘(Dadaism)에서 계승되었으나 초현실주의와 다다는 그 강조하는 면이 달랐다. 다다는 기존의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모욕하고 우습게 만드는 것에 만족했으나 초현실주의는 보다 조직적으로 전통예술의 진정성과 미적 기준의 비난을 드러냈다.²³⁾ 초현실주의 기원을 더 먼 곳에 찾아본다면 초현실주의 공간은 상상적 공간이며 비 현실의 공간이라

18) <http://www4.ready.co.kr/cwa98/museum/index.htm>.

19) op. cit., <http://www4.ready.co.kr/cwa98/museum/index.htm>.

2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1) 조민정, Salvador Dali의 회화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1988, p.4.

22) 이재운, 세계 미술 대사전, 서울 교학사, 1986, p632.

23) Lawrence Gowing, *A History of Art*, Oxfordshire: Barnes & Noble, 1995., p.882.

는 점에서 초현실주의는 간접적으로 입체주의의 공간의 파악이란 특색을 이어 받았다.²⁴⁾ 또한 형이상학파인 키리코(Giorgio de Chirico)(사진1)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회화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조형성과 사물의 실험적 조작은 무엇보다도 초현실주의 미학의 기초가 되는 이념의 정립과 그 선구자적 역할로 중요시되고 있다.²⁵⁾

정교한 사실주의 기법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편집광적으로 표현한 달리(Salvadore Dali)(사진2),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을 통해 사물을 일상적 의미로부터 해방시켜 정신의 전위를 통해 본질적인 의미로 복귀시키려한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심리근저의 욕망을 몽환적으로 표현한 델보(Delbo), 오토마티즘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마송(Andre Mason), 혼합체형식을 사용했던 에른스트(Max Ernst)와 투명회화 기법을 통해 고전적 이미지를 표현한 피카비아(Francis Picabia) 등은 초현실주의 이론의 한 근간이 되었던 프로이트의 성의 심리학과 잠재된 무의식 속의 에로스를 보여주고 있다.

오토마티즘 기법은 낭만주의 시대부터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의 데생과 여류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의 풍경화 등을 통해 인간의 자아의 확대에 눈을 떠 무의식을 통해 이루려던 초현실주의의 목표인 정신세계의 해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을 통해 이루려 했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립, 모순되는 것의 통합으로 무의식의 세계는 갈등이 없기에 대립 모순되는 것들의 저항이 없고 융화되며 이질적인 것도 용납되고 모여진다는 의미이다. 초현실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하거나 혹은 초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했던 것이다.²⁶⁾

이러한 초현실주의 운동은 후에 실증주의 정신의 독선을 막는데 기여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 아르누보, 팝아트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⁷⁾



<사진 1>
Giorgio de Chirico,
'Song of Love', 1914
(Art of Century, 1989)



<사진 2> Salvador Dali,
'The Great Masturbator', 1929
(Art of Century, 1989)

24) 두산세계 대백과, op. cit.

25) 배운영,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1987, p.55.

26) Jose Pierre, 초현실주의, 박순철 역, 서울: 열화당, 1979, p.12.

27) <http://my.netian.com/~8cifthkm/lesurrealism1.html>

3.

1) 초현실주의 이미지의 형태적 특징

초현실주의가 주는 이미지는 현대 예술이 지닌 다양성과 복잡성의 양상 중에서 눈 여겨 볼만한 신선함과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이미지로는 무의식과 상상력에 의한 이미지와 정신 착란적 연상처럼 화면에 둘 이상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이중 연상적 이미지를 들 수 있으며 프로이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성적 이미지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에로스를 원초적인 생명력으로 간주한 이미지도 특징적이다. 또한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²⁸⁾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페이즈망으로 인해 형태가 왜곡 변형된 이미지, 원시주의적 취향에서 비롯되어진 토템적 이미지를 형태적 특성으로 들 수 있다.

2) 초현실주의의 기법

(1) 자동기술법 (Automatism)

오토마티즘은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하려는 초현실주의의 의도를 나타낸 대표적 기법으로, 가능한 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손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움직임과 형태를 작품화한 것으로 대표적 작가로는 마송과 미로(Juan Miro)가 있다.(사진3)

① 프로타주 (Frottage)

에른스트가 1925년 여름에 마룻바닥의 얼룩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온갖 환각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기법으로, 나무 파편이나 나뭇잎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을 문질러 그림이 떠오르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우연한 효과를 노리는 것 뿐 아니라 몇 가지 피사물을 의식적으로 짜 맞추는 경우도 있고 혹은 거기에서 나타난 무늬에서 힌트를 얻어 붓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사진4)

② 데칼코마니 (Decalcomanie 轉寫法)

원래는 도기나 유리기구 등에 특수한 종이에 그린 그림을 옮겨서 염색하는 기법으로, 회화에서는 미끄러운 성질의 종이에 물감을 칠하고 그것을 접었다가 다시 피거나 또는 다른 종이를 그 위에 대고 눌렀다가 떼 때 생기는 우연한 효과를 작품에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사진5)

(2) 데페이즈망 (Depaysement 轉置, 轉位法)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으로 초현실주의 회화에서는 낯익은 물체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음으로써 꿈속에서 밖에 없는 화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풀라주와 오브제도 일종의

28)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실 묘사에서 이것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변형시키는 미술기법.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http://dic.naver.com/indic?query=deformation>)

전위라 할 수 있다. 데페이즈망의 대표적 작가로는 마그리트(Rene Magritte)(사진6)를 들 수 있으며 문학에서 ‘해부대 위에서의 재봉틀과 우산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로트레아몽(Comte. De Lautréamont)의 시키는 데페이즈망의 적절한 예라 하겠다.

① 콜라주 (Collage)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 물질을 붙여 구성하는 기법으로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도 기성품에 손질을 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물체끼리 조합시킴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쓰인다.(사진7)

(3) 레이오그램 (Rayogram)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감광 재료 위에 물체를 얹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명암 속에서 추상적 사진을 찍은 것이다. 포토그램(Photogram)과 같은 것으로 파리에 있던 미국의 초현실주의자인 만 레이(Man Ray)가 1923년 블룸(Bloom)이란 잡지 4월호 표지에 발표하면서 이 명칭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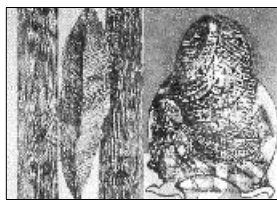
(4) 오브제 (Object)

예술과 관련 없는 물건, 또는 그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 용도에서 떼어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사진8) 다다이즘시대에 발표된 레디메이드(ready-made)²⁹⁾도 오브제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사진 3>

Andre Masson, 1924
automatic drawing,
(Art of Century, 1989)



<사진 4> 프르타주, Max Ernst,
'Histoire Naturelle' 1926,
'Hibou', 195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1995)



<사진 5> 데칼코마니
(Max Ernst, 'Europe after
The Rain', 1940~1942)
(Art of Century, 1989)

29) 예술가의 우연한 선택에 의해 예술품의 권위가 부여된 기성품.



<사진 6> Rene Magritte,
 '은밀한친구', 1958
 (Vogue, Korea, July,1998)



<사진 7>
 끌라쥬, Max Ernst,
 ('Le Facteur Cheval', 1929~30)
 (Addressing the Century, 1998)



<사진 8>
 Man Ray,'gift', 1921
 (Fashion and Surrealism,
 198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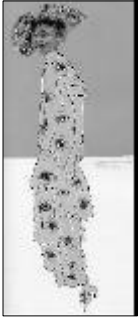
다다이스트들과 초현실주의자들은 예술의 분야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들여놓음으로써, 사진의 기법들을 통해 회화로써 표현되던 종래의 예술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다양한 방법론에 새로움을 추가하였다.³⁰⁾ 당시 다다이스트들에게 있어 예술은 이미 '중풍(中風)에 걸려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비쳤고 그러한 예술에 다시 치명타를 안겨주기 위해 미술의 가공할 적(敵)인 사진술을 끌어들이는 것이다.³¹⁾ 여기에서의 사진은 카메라로 어떠한 피사체를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복제, 즉 잡지에 복제된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들은 그 복제사진을 유채나 수채와 맞먹는 요소로서 화면에 도입시켰는데 그 예가 포토콜라주(Photocollage:사진9) 또는 포토몽타주(Photomontage)(사진10), 포토그램(photogram)(사진11)로 불리는 기법이다.

이러한 사진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무의식적인 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오토마티즘과 데페이즈망을 표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지속적인 작업 속에서 필요한 이미지의 부족을 느껴 필요한 대상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 사용하였으며 회화의 사진 도입이라는 측면은 단순한 매체의 도입이 아니라 사진의 정교한 리얼리티라는 성격의 도입, 즉 사진적 시각의 도입이라는 면에서 예술의 영역에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그들 작품의 묘사적인 요소들을 사진을 통해 정교하게 완결 지어냄으로써 불가능하고 기적과도 같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 점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사진은 후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회화와 버금가는 또 하나의 미학 창조방법과 소재를 제공하였다.

30) 이재수,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사진이미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1996, p.15.

31) 이당, 현대미술과 사진, 시각과 언어, 열화당, 1982, p.172.



<사진 9> 포토콜라주
(Alwaxander
Rodchenko, 1924)
(Addressing the
Century, 1998)



<사진 10> 포토몽타주,
Melvin Sokolsky
(<http://www.fp1.com/sept98/features/staleywise2000/fullshow/17.html>)



<사진 11> 레이오그램,
Man Ray
(<http://boimse.hihome.com/만레이07.htm>)

5.

초현실주의 성향을 보인 작가들의 패션사진의 다양한 이미지를 인체와 마네킨 이미지, 자연 이미지, 시각적 착각 이미지, 촬영무대 세팅에 의한 이미지, 유희성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1) 인체와 마네킨 이미지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몸을 오브제로서 선호하여 눈, 입술, 몸통, 손, 발 등 몸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 인체의 불균형, 뒤틀림, 비뚤어짐, 그리고 변형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이들이 선호한 이러한 취향과 더불어 신체의 새로운 느낌은 초현실주의와 패션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체의 변용과 신체에 대한 재현의 새로운 시도는 사진이라는 분야와 함께 초현실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큰 몫을 하였다.

만 레이(Man Ray)는 1924년에 ‘Le Violin d’ Ingres’이라는 포토콜라주기법을 사용한 사진을 발표하였는데 사진의 여체 뒷모습에 f 자를 그려 넣어 여체가 마치 바이올린으로 보이도록 연출하여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여성의 육체가 강조된 사진으로 여체에서 또 다른 형상을 발견하여 악기와 여성의 육체를 동일시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을 전해준다.(사진12) 닉 나이트(Nick Knight)는 포토 몽타주와 콜라주기법을 많이 사용하여 변용된 인간의 얼굴이나 신체를 작품에 담아 초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내었는데 2000년도 작품인 ‘Dolls’ 시리즈에서는 포토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색감을 덧칠하고 이물질 등을 오리고 붙여서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형의 모습을 모델을 통하여 초현실적 시각으로 재 탄생시켰다.(사진13)



<사진 12> Man Ray,
'Le Violon d' Ingres',
1924, (Fashion and
Surrealism, 1987)



<사진 13>
Nick Knight, 2000
(Fashion Image de
Mode No.5, 2000)

2) 자연 이미지

모든 자연의 생물체를 이용해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의 뒤를 밟아 패션계는 나뭇잎, 나비, 바닷가재, 새 등의 생물체를 복식과 연결시키는 스타일을 끊임없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통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패션사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현실주의 패션사진에 주로 등장하는 나비는 초현실주의자인 막스 에른스트와 살바도르 달리에 의해 콜라주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되었다. 아티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였던 달리의 1957년 실크회사의 바자(Bazaar) 광고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사진14)은 2001년 에르메스의 광고 비주얼과 아이디어면 에서는 매우 흡사하다.(사진15)³²⁾ 또한 초현실주의의 자연주의 표현을 위해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하여 모자를 커다란 꽃 모양으로 만들어 메이크업과의 조화를 이루어 꽃향기와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이 사진은 1986년 올리비에로 토스카니(Oliviero Toscani)의 사진으로 모델의 불안한 시선과 극적인 조명의 효과로 한층 신비스런 느낌을 준다.(사진16)



<사진 14> Dali,
일러스트레이션 1957
(Fashion and Surrealism,
1987)



<사진 15>
2001년 Hermes 광고 비주얼,
(Harper's Bazaar, Korea,
Sep. 2001)



<사진 16>
Oliviero Toscani, 1986
(Fashion and Surrealism,
1987)

32) Bazaar, korea, 11월, 2001, p.103.

3) 시각적 착각 이미지

불어로는 ‘트롱쁘뢰이유(Trompe-l'oeil)’라고 불리는 눈속임은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테크닉을 일컫는다. 패션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데페이즈망과 이용하여 의상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하여 많이 선보여졌는데 패션사진에서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 사진술의 눈속임과 이미지의 모든 복잡한 환경으로 하여금 인지와 인식으로부터의 현혹, 즉 현실에서 초현실로 옮겨지는 이미지가 드러나게 된다.

호스트 P.호스트(Host P. Horst)는 1938년의 그의 작품에서는 언뜻 보면 모델이 마차 발코니에서 한곳을 응시하는 것 같지만 실은 모델이 액자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사진술의 조작으로 연출하였다. 이중적 시각으로 의아함을 느끼게 하여 초현실적인 표현을 하였다.(사진17) 또한 애니 레이 보위츠(Annie Leibovitz)는 1986년 Adelle Lutz가 디자인한 도시의 카무플라주(camouflage) 의상을 통해 뒷 배경과의 동일성으로 하여금 눈속임 기법을 응용하였는데 이 사진에서는 벽돌이나 건물의 기둥의 모습이 그려있는 의상들을 전체적으로 벽돌을 쌓아 놓은 듯한 배경그림을 그려 넣어 마차 의상을 입고 있는 이들이 벽돌배경과 흡수되어 보이도록 유도하였다.(사진18)



<사진 17>

Host P. Horst, 1938.
(Fashion and Surrealism, 1987)



<사진 18> Annie Leibovitz, 1986
(Fashion and Surrealism, 1987)

4) 촬영무대 세팅에 의한 이미지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상의 세계를 인공적으로 유도하여 그림을 그린단던지 여러 가지 조명과 촬영 세트 등을 이용하여 초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어 작품에 담았다.

무대 세팅에 의한 초현실적인 느낌은 회화의 요소가 작용했을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하는데 주로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서 인간이 바라던 이상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데이비드 베일리(David Bailey)는 1980년에 이탈리아 보그(Italia Vogue)에서 달리의 ‘기억의 고집’에 등장하는 시계의 그림을 배경으로 패션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에서는 그림하나로 다른 연출 없이도 모델이 이 그림에 같이 흡수되어 신비한 나라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사진19)

또한 조명을 이용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낸 사진으로 Stephane Senaoui가 1996년도에 촬영한 플렌수드(Plein Sud) 광고 비주얼을 들 수 있는데 뒷 배경의 색감과 조명과 함께 모델에서 반사되어 나타나는 조명의 효과가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사진20)



<사진 19> David Bailey, 1980
(Fashion and Surrealism, 1987)



<사진 20>
Stephane Senaoui, 1996
(Fashion Image de Mode No.2, 1997)

5) 유희성 이미지

유희적 만족의 요소에 반응을 하는 심적 요인은 쾌락주의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쾌락주의는 이미지를 통해 관능성을 추구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즐거움과 관능적인 체험을 통해 유희성이 가진 미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 패션사진은 꿈을 현실로 접근하는 방법을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시각적으로 긴장감을 주면서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유머스러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동화나 만화 등의 주인공으로 분하거나 현실에서의 일을 극단적으로 과장시켜 유머스러운 느낌을 전달하여 독특함과 신선한 초현실성을 사진을 통해 부각시킨다.



<사진 21> David LaChapelle,
'milk maid', 1996
(Fashion Image de Mode No.2, 1997)



<사진 22>
Mark Seliger,
'즐담배 피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93
(Farbe, May, 2000)

데이비드 라샤펠(David LaChapelle)은 유희성이 가미된 초현실적인 사진들을 많이 발표하여 여러 가지 환상적인 연출과 색감 있는 비주얼을 선보였다. 사진21은 1996년 라샤펠의 작품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을 과장되고 허구적인 초현실적 시각으로 연출하여 신선하고 재미있는 모습과 함께 여러 가지의 색감을 잘 표현하였다.(사진21) 사진 138은 마크 셀리거(Mark Seliger)의 작품으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분한 드류 베리모어가 담배를 피고 있는 설정을 하여 유희성을 가미한 작품이다.(사진22)

IV.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 연구에 불가결한 패션사진의 시대적 변화의 추이를 고찰하고, 초현실주의 이미지 사진을 분석하였다.

오늘날 패션사진은 패션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현대 사회의 대중매체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으며 패션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대중매체로서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 기술의 놀라운 진보는 인쇄매체의 발전을 초래하였고 정보와 감각으로 만들어진 패션잡지들은 패션사진의 전문성을 살려, 이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내는 동시에 미래의 독창적인 예술까지 표현하는 예술적 장르로 승화시켰다.

1930대 후반부터 초현실적인 이미지는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과 꿈의 표현이 많은 사진가들의 영감이 되어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링, 기술, 조명 등으로 오늘날까지 여러 사진작가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선보여지고 있다. 패션에서의 초현실주의는 초현실적인 요소를 가미한 기발한 의상들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반면, 패션사진에서의 초현실주의의 표현은 의상 이외에도 모델의 포즈나 이미지의 설정, 촬영세트나 조명, 또한 사진술의 기법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이를 통하여 패션 연구에서 패션사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특히 현대의 정신적 특징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 경향의 패션사진 이미지를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질적 확대를 추구하였다. (접수: 2002년 2월 22일)

【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당, 현대미술과 사진, 시각과 언어, 열화당, 1982.

- 이명천 외, 14명, 글로벌 시대의 광고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1999.
- 이재운, 세계 미술 대사전, 서울 교학사, 1986.
- 조세현, 조세현 패션사진, 김영사, 2000.
- Addressing the Century -100 Years of Art & Fashion-*, London, Hayward Gallery, 1998.
- Lawrence Gowing, *A History of Art*, Oxfordshire: Barnes & Noble, 1995.
- Jean-Louis Ferrier, *Art of Century-The Story of Western Art 1990 to The Present-*, Longman, 1989.
- Jose Pierre, 초현실주의, 박순철 역, 서울: 열화당, 1979.
- Lisa Lovatt-Smith, Patrick Remy, *Fashion Image de Mode No.2*, Steidl, 1997
- Lisa Lovatt-Smith, Patrick Remy, *Fashion Image de Mode No.5*, Steidl, 2000
- 김석란, 광고사진의 image에 관한 고찰-fashion catalogue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1998.
- 배운영,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1987.
- 손종진, 패션사진의 표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1995.
- 윤을예, 국내 라이선스 패션 잡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1997.
- 이경옥, 패션사진의 시각적 표현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 패션 전문지의 광고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1994.
- 이수왕, 90년대 패션사진의 흐름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1998
- 이재수,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사진이미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19965.
- 정승혜, 패션사진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2000.
- 조민정, Salvador Dali의 회화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1988.
- 형성희, 은영자, 현대복식의 초현실주의적 조형성, 복식문화연구 제 2권 제 2호, 1994.
- 홍주표, 패션사진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경향과 표현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석사학위, 1998.
- Bazaar, korea, 11월, 2001.
- Farbe, May, 2000.
- 고형모, 여성 성의식의 변화가 패션사진의 표현에 미친 영향 -여성해방운동의 성과가 활발했던 60-90년 대를 중심으로-, kapa 28호, 2000
- <http://www.fotato.com/webzine/book/02/index02.asp>
- <http://my.netian.com/~8cifthkm/lesurrealism1.html>
- <http://dic.naver.com/entic?query=deformation>
- <http://www4.ready.co.kr/cwa98/museum/index.htm>.

A Study on the Fashion Photography in Surrealism Trend

Dept. of Fashion Design, Dong Duck Women's University **Yunhee Cho**

Dept. of Fashion Design, Dong Duck Women's University **Hyunsook Choy**

Every season in the world of Fashion, designers have accelerated the flow of fashion trend by introducing new styles. Due to the accelerative current of fashion, the fashion-photo now plays a pivotal role as a medium of social communication. By definition, photography is "Drawing with light", and this medium is now one of the most trusted means of reproducing, since Louis Jacques Mande Daguerre introduced it into the world in 1839.

Interaction between fashion and photography has become inevitable, due to the importance of fashion images as a means of recording and advertising. Despite the importance of this relationship, extensive research in the field of fashion photography has not been induced.

The most outstanding phenomenon in fashion advertisement of the year 2001 is Surrealism. Ever since it first appeared after the first World War, Surrealism continues to strongly influence fashion.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riginality of surrealist photography in comparison to painting, and to recogniz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photography.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images of Surrealism within fashion photography into images of the human body/mannequin, nature images, images with optical illusion, photo setting images, and humorous images.